# 부동산시장 동향 <Summary>

#### [ 주거용 부<del>동</del>산시장 ]

- 주택가격: 가격 하락세 지속되고 있으나, 수도권 중심으로 하락폭 둔화
  - 4월 전국 주택매매가격(-0.8%)은 3개월 연속 유사한 하락폭 유지. 매수부담 지난해 대비 완화되며 매수세 일부 회복, 매매전망 지수는 상승세 지속
  - 전세가격 하락폭은 4개월 연속 둔화되었으나, 주택시장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전세시장에 대한 우려 존재
- 주택거래: 매매거래량, 아파트 중심으로 증가세 뚜렷
  - 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약 5.2만 호, 직전 1년 평균 거래량 대비 27.9% 증가
- 주택분양 : 분양물량 감소, 거래량 회복 등에 힘입어 미분양 1년 만에 감소
  - 4월 분양물량 약 1만 2천 호로 지난해 월 평균 대비 60% 감소. 3월 미분양이파트는 약 3천 호 감소
- 토지: 전국 토지거래량 증가와 함께 지가변동률 상승세로 전환
  - 3월 토지가격은 0.01% 상승하며 5개월만에 상승세 전환
  - 전국 토지거래량 16.4만 건으로 전월대비 8% 증가한 수준
- 주택금융: 주택담보대출 1개월 만에 순증 전환, 연체율 상승세 지속
  - 2월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대비 2.3조 원 증가. 전세자금대출은 2.3조 원 감소
  - 신규 대출금리는 4.40%로 전월대비 16bp 하락, 연체율은 0.20%로 전월대비 2bp 상승

#### [ 상업용 부동산시장 ]

- 오피스: 1분기 매매거래 급감, Core 자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
  - 1분기 서울 오피스 거래규모는 약 1조 원으로 전년동기 58% 감소, 4월들어 거래량 회복 움직임
- **오피스텔**: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 하락폭 축소. 인천은 하락폭 확대
  - 전국 매매가격지수 7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하락폭 축소, 오피스텔 전세보증 사고 증가로 경매 유입 급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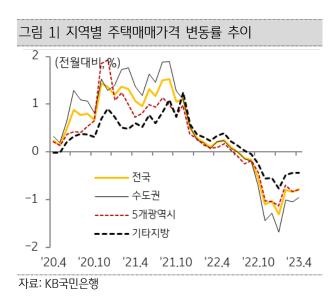
#### [ 해외 부<del>동</del>산시장 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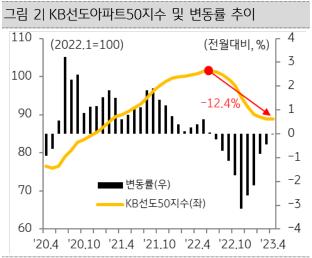
- 미국 주택 : 주택가격 조정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
  - 모기지 금리 상승세 주춤하면서 2월 S&P 주택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.2% 상승 전환. 금리 추가상승 가능 성도 잔존하는 가운데 단기간내 주택시장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
- **호주 주택** : 금리인상 및 높은 가계부채 부담으로 약세 지속 전망
  -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재고물량 감소, 이민자 유입 등으로 가격은 3월들어 소폭 상승. 가계의 높은 부채부담과 금리인상에 따른 상환압박으로 주택시장 약세 지속될 전망

# [주택 매매] 가격 하락세 지속되고 있으나, 수도권 중심으로 하락폭 **둔화**

## ■ 전국 주택매매가격 3개월 연속 0.8% 하락, 주요 아파트는 전월 대비 하락폭 크게 둔화

- 주택매매가격은 규제 완화, 매수심리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,
  연초(1월 -1.3%) 대비 하락폭은 둔화된 모습(2월: -0.79% → 3월: -0.83% → 4월: -0.78%)
- 시세총액 상위 50개 아파트(KB선도아파트50)는 지난해 6월 고점 대비 약 12% 하락했으나, 최근 들어 하락폭은 크게 둔화(4월 -0.04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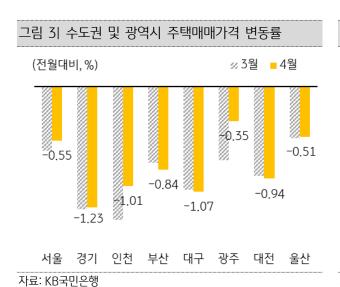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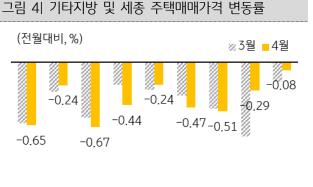


자료: KB국민은행

## ■ 경기·인천·대구·대전, 1% 내외 하락세 지속

- 경기·인천은 여전히 1% 이상 하락하였으나. 수도권 중심으로 하락폭 둔화는 지속
- 부산·대구·대전은 3개월 연속 하락폭이 소폭 확대. 기타지방의 하락폭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비해 크지 않으나, 경상권 중심으로는 하락폭 확대





세종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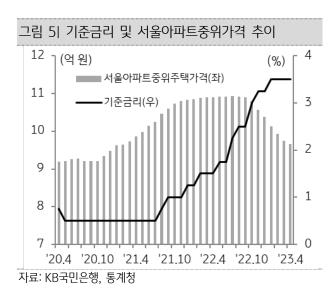
자료: KB국민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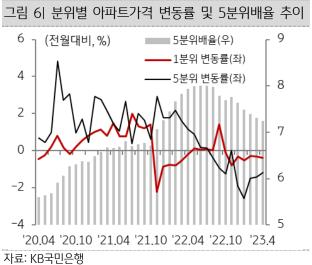
★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

# [주택 매매] 매수부담 지난해 대비 완화, 매수심리는 완만한 회복세

#### ■ 지난해 대비 매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택가격 격차는 다소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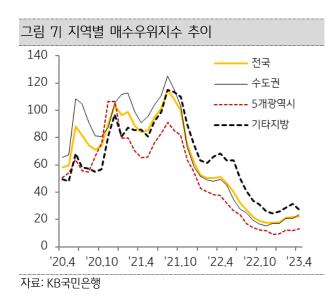
- 연초 이후 기준금리 동결, 대출 규제 완화, 특별보금자리론 등으로 매수부담은 과거 대비 완화
- 지난해까지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고가주택의 하락세 지속과 저가주택의 낮은 하락폭으로 인해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격차(5분위 배율)는 지난해 4분기 이후 감소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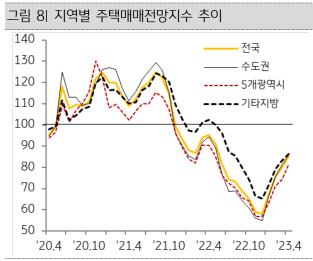




#### ■ 연초 이후 매수세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며, 매매전망지수는 상승세 지속

- 매수부담 완화로 위축되었던 매수세가 일부 회복되고 있으나, 보유세 부담 완화, 저가 급매물 거래로 인한 매도호가 상승과 여전히 존재하는 거시경제 불안 등으로 매수세는 완만하게 회복
- 매매전망지수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하락전망이 우세하지만, 지난해 12월 이후 모든 지역에서 4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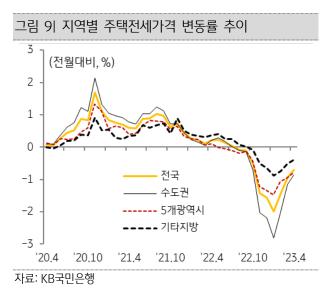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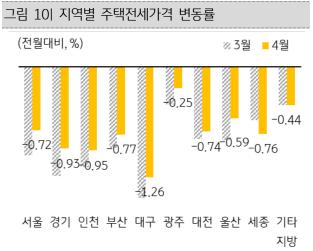


# 「주택 전세」 전세수요 일부 증가하였으나, 여전히 전세시장에 대한 우려 존재

#### 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락폭 둔화

- 4월 주택전세가격은 0.7% 하락. 연초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폭 둔화
  - 대출비용 감소, 월세가격 증가 등에 따라 전세에 대한 수요는 지난해 대비 일부 증가,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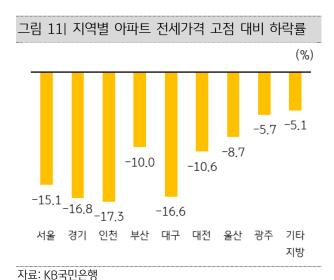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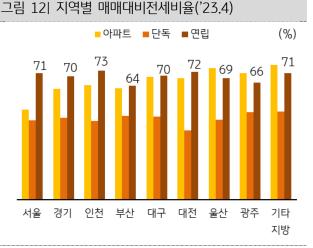


자료: KB국민은행

## ■ 다만, 주택시장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전세시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황

-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동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'역전세'와 '깡통전세' 이슈는 지속될 수 있음
  - •전국 기준 고점 대비 약 12% 하락하였으며, 인천의 경우 고점 대비 17.3% 하락.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대거 '역전세' 문제 발생 가능
  - 또한 연립주택 중심으로 많은 지역에서 매매대비전세비율이 70%를 상회하고 있으며, 비수도 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파트의 매매대비전세비율도 높아 깡통전세에 우려도 존재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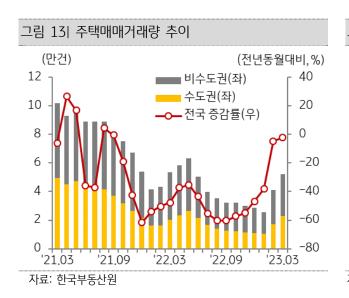
자료: KB국민은행

-1 -3

# [주택 거래] 매매거래량, 아파트를 중심으로 증가세 뚜렷

## ■ 주택매매거래량, 지난해 5월 이후 최대치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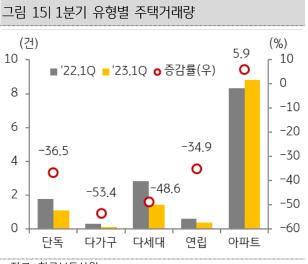
- 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5만 2,333호로 직전 1년 평균 대비 27.9% 증가
  - 수도권(31.8%)과 비수도권(23.6%)에서 모두 증가했으며, 전북·강원 지역만 감소
- 주택매매거래량은 정부정책과 금리안정의 영향으로 올해 2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했으나 주택경기의 본격적 회복으로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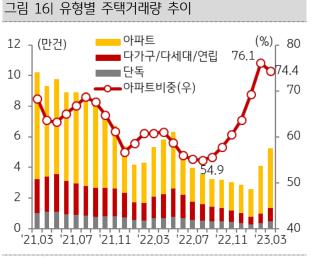


#### ■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전체 거래량 증가를 견인

- 올해 1분기 유형별 거래량을 보면 전년동기 대비 아파트만이 유일하게 증가
- 전체 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월 54.9%까지 낮아졌으나 올해 2월 이후에는 70%를 상회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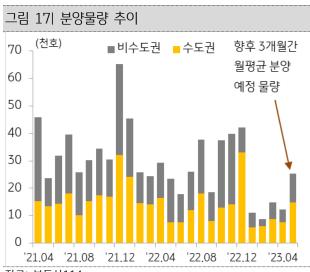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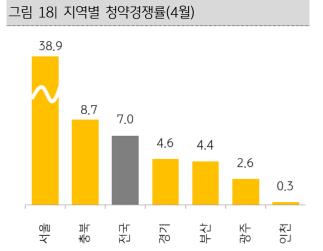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부동산원

# [주택 분양] 분양물량 감소, 주택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미분양 1년 만에 감소

#### ■ 4월 분양물량, 4개월째 1만호 내외에 불과

- 4월 분양물량은 약 1만 2천호로 지난해 월 평균 분양물량 대비 60% 감소
  - •최근 거래량 증가, 미분양 감소 등 주요 지표들이 호전되고 있어 향후 분양물량은 증가할 전망
- 청약경쟁률은 7:1을 기록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지역별로 경쟁률 편차는 뚜렷한 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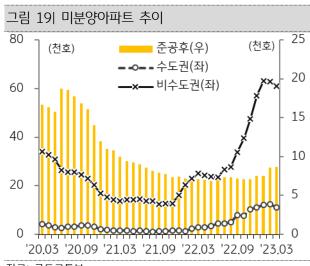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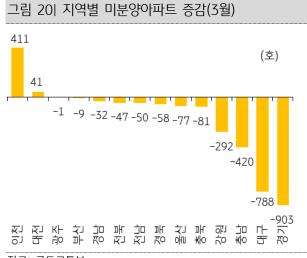
자료: 부동산114 자료: 한국부동산원

#### ■ 주택경기가 회복되면서 미분양도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

- 3월 미분양아파트는 7만 2,104호로 전월대비 약 3천 호 감소
- 분양물량의 감소와 최근의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인천과 대전을 제회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분양이 감소







# [토지] 전국 토지거래량 증가와 함께 지가변동률 상승세로 전환

## ■ 3월 전국 토지가격은 0.01% 상승하며 5개월만에 상승세 전환

- 수도권 및 대전·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 회복세 시현
  - •특히 세종(0.07%)과 대전(0.04%)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한 편
  - •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하락폭은 크게 감소하였으며, 인천과 경기는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최근 주택시장 회복세와 함께 토지가격도 상승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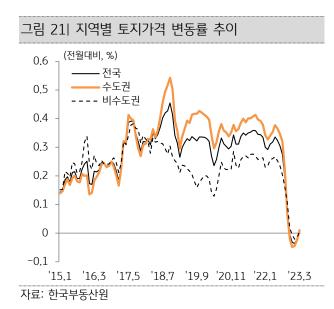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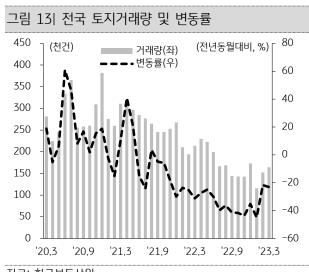


표 1  지역별 토지가격 변동률(전월대비 %)						
전국	0.01	경기	0.03			
서울	-0.01	강원	0.03			
부산	-0.01	충북	0.02			
대구	-0.04	충남	0.06			
인천	0.02	전북	0.00			
광주	-0.01	전남	0.00			
대전	0.04	경북	0.01			
울산	-0.03	경남	0.02			
세종	0.07	제주	-0.07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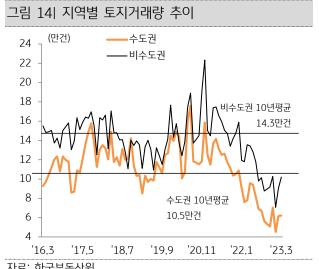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부동산원

#### ■ 전국의 토지거래량은 16.4만건으로 전월대비 8% 증가한 수준

- 주택회복세와 함께 토지 거래시장 분위기도 개선되고 있으나 과거와 비교시 여전히 낮은 수준
  - 수도권(6.2만건)과 비수도권(10.2만건) 거래량은 증가세를 보이나 지난 10년간 평균대비 30~40% 낮은 규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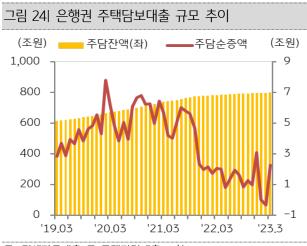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부동산원



# [주택 금융] 주택담보대출 1개월 만에 순증 전환

## ■ (대출 규모) 은행권 주택담보대출(전세대출포함)은 전월대비 2.3조 원 증가

- O 3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량 회복과 주담대 신규금리 하락으로 순증 전환
  - •전세대출(-2.3조 원) 수요의 부진 지속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가, 특례보금자리론 실행 등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월대비 순증 전환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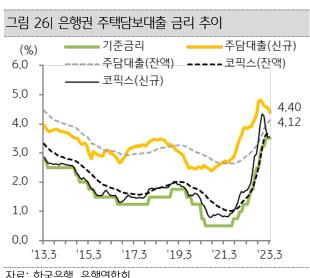
주: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관련대출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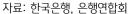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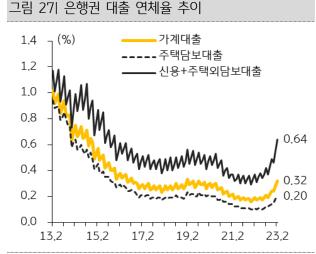
## ■ (금리, 연체율) 신규 대출금리 6개월 연속 하락, 연체율은 상승세 지속

- 3월 주담대 신규 대출금리는 4.40%로 전월대비 16bp 하락
  - 가계대출 성장성 위축으로 은행간 금리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출금리 하락폭은 확대
-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대비 2bp 상승한 0.20%로 '20.5월 이후 최고치
  - •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가구 등을 중심으로 원리금상환 부담은 지속될 수 있음

자료: 한국은행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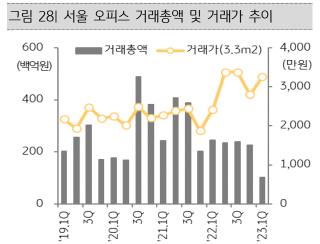


자료: 금융감독원

# [오피스] 1분기 매매거래는 급감했으나 Core 자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

## ■ 1분기 서울 오피스 거래규모는 약 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8% 감소, 4월들어 회복 조짐

- 직전분기 거래량의 80% 이상을 점유한 리츠 자산편입목적 매매거래가 1분기 실종되면서 거래량 급감
- 한편 작년부터 매각을 추진한 판교 알파돔(7,284억 원), 광화문 콘코디언(6,292억 원) 매각이 4월 성사. 그동안 위축세를 보이던 오피스 시장에서 A급 오피스에 대한 투자수요 확인



주: 거래가 산정시 개발 목적 매매 건 제외 후 산출 자료: 교보리얼코

표 기 오피스 내내거래 연왕(2023)								
	오피스명	매수자	소재지	거래규모 (억원)	평당가격 (만원)			
	중앙일보 빌딩	시빅센터 PFV	서소문	2,900	4,762			
	세신빌딩	한섬	청담동	1,668	4,061			
_	세명빌딩	빗썸 코리아	대치동	1,630	11,609			
	콘코디언	마스턴 투자운용	광화문	6,292	3,450			
	알파돔	삼성SRA 자사 <del>오용</del>	판교	7,284	2,735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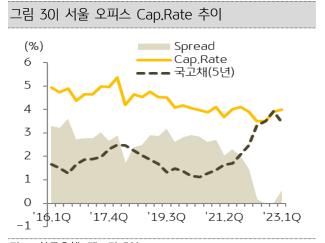
자산<del>운용</del> 자료: 언론사 자료 취합, 젠스타메이트

## ■ 금리 상승에도 견고한 임대수요를 바탕으로 Core 자산에 대한 투자수요는 유효

- A급오피스에 대한 임대차 수요는 지속되는 가운데 임대인 우위시장은 지속될 전망
  - •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가운데. 공실률(1.21%)은 역대 최저치 기록하며 임대료도 상승세 유지
- 해외 오피스 시장 대비 안정된 임차수요를 바탕으로 Core 자산에 대한 투자수요는 견고한 편
  - •국고채금리 하락과 Cap.Rate 상승으로 역레버리지 투자 환경 개선되는 흐름 속 작년대비 하 향된 매도호가는 투자선호도 높은 Core 자산의 거래성사에 도움



자료: 한국은행, 교보리얼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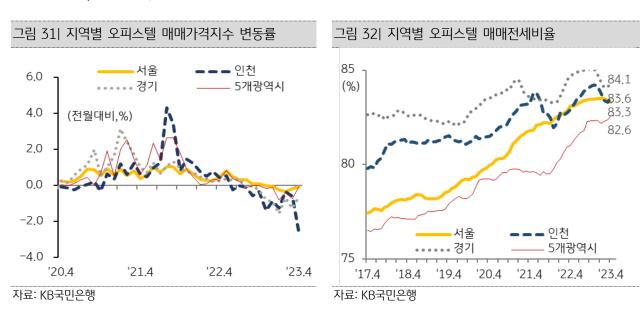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, 젠스타메이트

# [오피스텔] 전국 매매가격지수 7개월 연속 하락, 하락폭 축소

#### ■ 대부분 지역에서 오피스텔 매매가격 하락폭은 축소되었으나 인천은 하락폭 확대

- 4월 전국 매매가격지수(-0.4%) 7개월 연속 하락세, 하락폭은 전월대비 0.3%p 축소
  - 서울(-0.1%)과 5개 광역시(-0.1%)를 중심으로 하락폭은 축소되었으나, 인천(-2.6%)은 2011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 하락폭 기록
- 한편, 80%를 상회하는 높은 매매전세비율로 인해 전세금 반환 Risk에 노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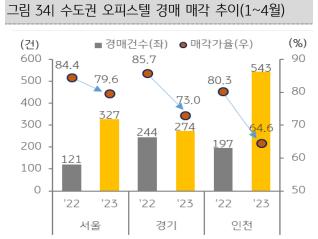


#### ■ 오피스텔 전세보증 사고 증가 영향으로 오피스텔 경매 유입 급증

- 올해 1분기 오피스텔 전세보증 사고 급증하면서 지난해 전체 사고건수의 70%에 육박, 높은 매매전세비율 영향으로 전세보증 사고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
- 2023년 1~4월 경매 유입 늘어나며 인천(176%), 서울(170%)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



자료: 주택도시보증공사, 한국일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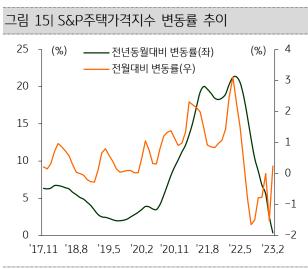


자료: 법원경매정보

# [미국 주택시장] 주택가격 조정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

## ■ 미국 경기불안 및 금리인상 부담으로 주택매수심리 위축세는 지속

- 미국 경기불안으로 주택시장은 하락세를 보였으나. 금리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주택가격은 재상승
  - 2월 S&P주택가격지수는 297.68로 전월대비 0.2% 상승
  - 3월 주택판매량은 기존주택 444만 호로 전월대비 2.4% 감소했으나 신규주택은 68.3만호로 전월대비 9.6% 증가





7자료: Bloomberg

## ■ 금리 추가인상 등 불안요인은 잔존하나 부족한 공급물량 감안시 조정추세는 지속될 전망

- 금리 추가상승 가능성도 잔존하는 가운데 단기간내 주택시장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
- 한편 주택공급물량은 여전히 부족한 여건(기존주택 재고소진기간은 2.6개월, 신규 7.6개월)으로 주택가격 하방압력은 약화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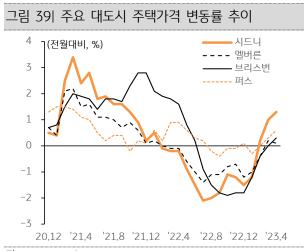
그림 18 NAHB지수 및 신규주택 착공건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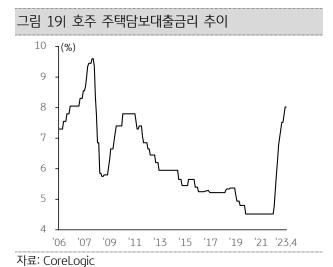
小声: Bloomberg

# [호주 주택] 금리인상 및 높은 가계부채 부담으로 주택시장 약세 지속 전망

## ■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재고물량 감소, 이민자 유입 등으로 가격은 소폭 상승

-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주택가격은 하락하였으나 올해 3월 들어 다시 상승
  - 호주 중앙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10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(현재 3.6%로 동결)
  - •지난 12개월간 하락세를 지속하던 호주 주택가격은 최근 이민자수 증가 및 재고물량 부족 등 으로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회복세 시현





자료: CoreLogi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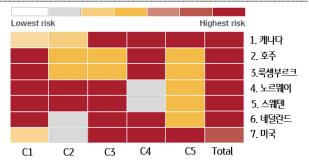
# ■ 가계의 높은 부채부담과 금리인상에 따른 상환압박으로 주택시장 약세는 지속될 전망

- 가계부채수준이 높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호주의 경우 대출상환 압박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
  - •IMF는 호주 주택시장의 위험수준이 세계에서 2번째로 높다고 경고. 가계의 부채부담과 높은 금리수준,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



자료: 호주 중앙은행

# 그림 21| 글로벌 주택시장 리스크



- C1: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대출
- C2: 변동금리 대출 비중
- C3: 대출 보유 주택소유자 비중
- C4: 주택가격 상승률('2.1Q-'22.1Q) C5: 정책금리 변동률('22.1Q-'22.3Q)

자료: IMF